

# 전환 속 내공 쌓기

속도보다 방향, 전환기 지부 지도력 제대로 세우자

## 몰라보게 달라졌네

2017년 한 해가 끝나갑니다. 경기지부는 어느 해보다 변화무쌍한 2017년을 보냈습니다.

**식구가 엄청 늘었습니다.** 작년 12월 4,100명이었던 조합원이 지금은 5,200명입니다. 2월 삼화지회를 시작으로 삼성웰스토리, 현대모비스화성, 썬텍, 현대위아안산, 금토일산업지회가 새식구가 됐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각 지역지부로 편제되면서 삼성전자서비스경기지회도 왔습니다.

**지부는 변화하는 중입니다.** 창립 30주년을 맞는 사업장이 많은 해였는데, 조합원과 간부들은 오히려 많이 젊어졌습니다. 10기 들어 처음 지회장을 맡은 이들이 10명이 넘고, 사업장 간부들도 새 얼굴이 많습니다.

## 2018 무술년은 전환기

2017년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정권이 교체되자 세월호가 올라왔습니다. 전 정권의 핵심인물들은 감옥행, 한국 기업권력의 최고봉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1년 내내 감옥신세입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정권 초 핫이슈였고, 내년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됐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노조할 권리를 둘러싼 정부와 기업, 노동조합의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적폐청산의 화살은 이명박 정권의 비리까지 겨냥해, 당시의 노조파괴와 조합활동 축소 등 노동권 후퇴를 바로잡자는 목소리도 높아집니다.

진짜 우리 삶을 바꾸려면 더 깊은 성찰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크게 느꼈습니다. 제천스포츠센터 화재같은 일이 또 터지다니 사람보다 돈이 중한 세상은 여전합니다. ‘현장실습’이란 이름의 저임금 노예노동으로 갓 열아홉 청소년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정부가 꺼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오히려 노동자 갈등만 부추기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대폭 올랐지만, 기업은 임금체계를 바꿔 안 올려주려 애씁니다.

그럼에도 거스를 수 없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흐름 앞에 자본은 엄청난 부담을 느낍니다. 첫 해에 눈치 보며 었드렸던 기업들은 집권 2년차 반격을 노립니다. 임금, 노동시간, 조합 활동 등 한국 노사관계는 거대한 전환기에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산업은 세계시장 변화와 미래자동차 등 변수를 앞두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 속도보다 방향이죠

지부도 안팎으로 전환기입니다. 안으로는 조합원과 간부의 세대교체, 노동조합 활동의 질적 변화와 성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밖으로는 한국 노사관계 전반의 변화, 현대그룹의 노사관계 전략 변화, 미래자동차시대를 대비한 경영전략의 변화를 분석·대응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지부 10기 임원선거가 아직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운영위원들은 **전환기 속 10기 지도력 구성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4개 사업장이 임원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선거를 치르기보다 현대케피코지회 등 전환기 지부 중심역할을 할 사업장들이 10기 구성에 제대로 힘을 실을 수 있도록 1월 말까지 함께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현대케피코지회는 10월 새 지도부를 구성하고, 12월부터 2017년 임단협 보충교섭을 재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임오프 도입 후 지부 파견이 어려웠던 상황을 돌파하고, 지부 지도력 구성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지부 임원파견 보장을 요구하고, 조합원 공감대를 만드는 노력으로 바쁜 연말입니다. 지부 운영위는 지회 교섭 등 상황을 계속 공유·점검하며 2018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새시대 맞는 내공 준비 중

**12월부터 지부 운영위는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지역지회 이규선 지회장이 맡고, 8개 집단교섭 사업장과 한온평택지회가 임원을 맡아 매주 금요일 집행회 회의를 하고 지부운영을 점검합니다. 교섭이 진행되는 삼성웰스토리는 계양전기, 현대위아안산은 SJM, 금토일산업지회는 우창정기지회가 맡았습니다. 비대위 임원들은 “지회 운영을 하면서 지부 임원역할까지 하는 게 힘들지만, 지부 지도력을 제대로 구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경기지부 전체는 올 겨울 전환기 속 지부 지도력을 함께 구성해나가며 새시대 새로운 노동조합의 내공을 착착 쌓는 중입니다.

올 초 사업계획 세울 때 약속한대로, 사업장 안팎에 노조의 향기를 퍼뜨리고 지부의 새 기운을 만드는데 경기지부 5,200 조합원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 모두가 존경과 사랑을 담아 감사인사 드립니다. 2018 무술년에도 노조의 향기 짙게 퍼뜨립시다.

# 노동권 내공 쌓는 겨울

지부는 처음 노동조합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권리를 지키는 노동자의 권범이 **노동권**”이라고 교육합니다. 노조 만드는 준비부터 설립-교섭-단체행동-첫 단협 체결까지를 “노동권 1단 땀다.” 2~3번 단체교섭을 거쳐 노동3권을 충분히 익히고 기반을 닦으면 “2단 땀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사업장 안팎의 권리전도사가 되면 “고수됐다”고 합니다. 연말연시에도 노동권 1단을 따려는 신참들과 이를 돕는 고수들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 노동권 1단 따자

지난 11월 18일 **현대위아안산지회**가 탄생했습니다. 현대 위아안산공장에서 기아차 소하리공장에 들어갈 샤시모듈을 만드는 3개 업체 200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현대모비스화성 지회가 5월 설립, 8월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10월에는 현대 모비스아산지회가, 11월에는 현대위아안산지회가 생겼습니다. 위아안산공장에선 오래전부터 “어차피 위아광주 임금 오르면 너네도 올려주는데 뭐하러 고생스럽게 노조하냐”며 노조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는 임금노예 아니다. 따라지 노조 안 한다. 우리 권리 우리 손으로!” 외치며 기업 노조를 모두 없애고 진짜노조를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사내 교섭을 피하려고 교섭요청에 5차까지 불참하는 등 지연작전을 폈지만 27일(목) 사내에서 노사가 처음 만납니다. 1월 13일(토)에는 전조합원이 처음 모이는 신년회를 열고 노동권 1단을 향한 공감대를 가족과 지역까지 넓힐 예정입니다.

12월 9일 노동권 배우기에 합류한 **금토일산업지회**는 시화공단에서 자동차 안전벨트, 에어백 등 내장재를 만드는 사업장입니다. 회사는 노동자에게는 상여금도 없이 최저임금 주면서, 투자를 무리하게 하느라 법정관리상태가 됐습니다. 70여 명의 조합원 중에는 이주노동자도 많습니다. 19일(화) 교섭 상견례를 했고, 28일(목) 2차 교섭 예정입니다.

올해 4월에 가입한 **삼성웰스토리지회**는 최근 복수노조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지위를 확보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집단교섭을 하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있지만, 삼성그룹 내 민주노조로는 처음으로 삼성웰스토리 노사가 교섭자리에 앉게 됩니다. 27일(수) 상견례를 요청했는데, 회사는 연말 업무 상 18년 1월 10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 고수 향한 열기 뿜뿜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는 2018년 임금협상 조기교섭을 요청했습니다. 복수노조제도를 악용해 업체에 노조가 생길 때마다 기업노조 인원을 늘려 교섭권을 빼앗고 기초협약을 무력화했던 사측. 지회는 조직확대에 모든 힘을 쏟았고, 2018년 교섭권을 되찾을 계획입니다. **대창지회**는 회사의 끝없는 뒤끝에도 2018년 조직안정화와 2년차 단체교섭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최근 하이디스 투쟁 1,000일을 맞아 모금을 했는데 “천일이니까 천원씩 하자”는 제안에 조합원들이 “뭘 천원이야! 인당 만원 씩 내면되지!”해서 제안한 간부는 머쓱해졌습니다. 지부 전체를 책임지고자 하는 모습에서 벌써 노동권 고수의 향기가 풍깁니다. 라인인원이 너무 빠듯해 평일 집회는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던 **현대모비스화성지회**도 하이디스 1,000일에 70명이 모금함 들고 왔습니다. 8월 단협체결 후속으로 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며 인력충원과 체계개편 등 현장을 바꾸는 데 연말도 휴일도 없이 열심입니다. 작지만 강한 **지큐피앤씨지회**는 17명 조합원 중 15명이 간부를 맡았습니다. **코리아에프티지회**는 회사가 파업을 대비해 쌓은 재고와 경영부진 핑계에 일방적으로 잔업을 없애고 휴업을 하는 등 연말까지 이어졌지만, 3년차의 탄탄한 내공으로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막고 있습니다.

지부 사업장들 모두 새 지도부를 선출해 진용을 갖췄습니다. 매년 임단협을 마치면 전 조합원 5만원씩 걷어 하이디스, 시그네틱스 등 투쟁사업장 지원하는 대원안산평택의 고수들에 이어 올 해는 계양에서도 처음으로 전조합원 1만원을 걷어 힘을 보탤습니다. 유서 깊은 노동권 고수들의 뒷받침 위에 신참들도 함께 노동권 내공을 쌓고 있습니다.

**지부는 지금 2018 무술년 권리의 봄을 향해 함께 가는 중!**